

충암(冲庵) 김정(金淨)

『제주풍토록(濟州風土錄)』의 교육적 의미

김유리*

< 차례 >

- I. 서론
- II. 충암 김정의 제주유배와 『제주풍토록』
 - 1. 충암 김정의 제주유배
 - 2. 『제주풍토록』의 서지학적 형식
- III. 『제주풍토록』의 교육적 의미
 - 1. 충암 김정의 교육관과 실천근거
 - 2. 『제주풍토록』의 교육적 구조와 의미
- IV. 결론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충암 김정의 『제주풍토록』에 나타난 교육적 의미를 탐색해 보기 위해 가락이 갖고 있는 교육적 구조와 충위를 살펴보았다. 충암 김정은 사림 출신으로 도학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하다 기묘사화에 연루되어 일찍이 삶을 마치게 된 인물로, 제주도 유배기간동안 제주도의 풍토와 상세한 모습들을 담은 『제주풍토록』을 남기게 된다. 그는 유교적 이상정치 실현을 위해 조광조와 함께 지치주의를 내세우며 향약운동에 헌신을 하였던 사람이다. 이러한 그의 향약에 대한 실천적 정신은 『제주풍토록』에도 그대로 개진된다. 결국 충암은 『제주풍토록』을 통해 향약의 4대 강목인 덕업상권, 과실상규, 예속상교, 환난상휼의 논리를 펼쳐보임으로써 16세기 사리에 어두운 제주도민들을 흥학교화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 제주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주제어 : 충암 김정, 제주유배, 「제주풍토록」, 향약, 덕업상권, 과실상규, 예속상교, 환난상출.

I. 서론

조선시대 최악의 유배지였던 제주도에는 200여명이 넘는 유배인들이 왕래를 했다. 그들 중 많은 유배인들이 제주도 유배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기록들을 남겼다. 그러나 그런 기록들 가운데 풍토지는 단 2편으로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갖고 있다. 충암(冲庵) 김정(金淨: 1486~1521)의 「제주풍토록(濟州風土錄)」과 규창(葵窓) 이건(李健: 1614~1662)의 「제주풍토기(濟州風土記)」가 바로 그것이다.

이 2개의 풍토지는 제주의 풍토와 문화 그리고 그에 대한 인식 등을 기록한 매우 희귀한 자료들이다. 원래 이러한 풍토지는 대개 조선시대 각종의 관찬읍지에 많이 나타난다. 그 편찬의 의도는 백성들을 지배하기 위한 통치자의 편의성에서 출발하여 정치적 목적에 제공되었다. 그러나 2개의 기록은 이러한 성격에서 벗어나 실제 체험을 바탕으로 당대 제주 지역의 풍토와 상황을 생생하게 그려낸 제주풍토지이다. 한편, 다른 기행문에서는 볼 수 없는 문장의 비장함을 맛볼 수 있어, 문학적으로도 훌륭한 수필로도 평가된다.

그런가하면 2개의 풍토지에는 당대 제주도 풍토에 대한 저자 나름의 인식과 판단이 정리되어 있어서 그 행간에 감춰진 의미를 읽어 낼 필요가 있다. 특히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이었던 저자들은 제주도를 매우 어리석고 사리에 어두운 지역으로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인식은 계몽적이며 교육적인 구조와 논리를 갖추지 않을 수 없었다. 충암의 경우는 16세기 사림파들의 사회교육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향약(鄉約)의

논리를 풍토지에 개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을 요한다.

이런 점에서 2개의 풍토지는 단순히 제주도의 풍토에 대한 기록이라기보다는 당대의 교육적¹⁾ 담론이 게재된 중요한 자료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그러한 교육적 논리가 강한 충암(冲庵) 김정(金淨)의 「제주풍토록(濟州風土錄)」을 대상으로 그것이 향약의 4대 강목에 근거하여 어떠한 교육적 구조를 지니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제주유배인 충암은 제주도의 교육적 환경을 어떻게 이해했고 개혁사림파로서 그의 교육관을 어떻게 실천하고자 했는지 살펴봄으로써 제주교육사의 새로운 내용을 보충하고자 한다.

II. 충암 김정의 제주유배와 「제주풍토록」

1. 충암 김정의 제주유배

김정의 자는 원충(元冲)이고 호는 충암이다. 그는 1486년(성종 17년) 9월 충청도 보은에서 태어나 9세에 사서를 통독하였다. 처음 과거에 나간 것은 14세 되던 연산군 12년(1499)이었으며 본격적으로 관계에 나간 것은 중종 이후다.

그는 중종 2년(1507)에 별시에 급제, 성균관 전적으로 벼슬을 시작하면서 중종 9년(1514)에는 병조정랑 부교리 등을 거쳐 순창군수가 되는 등 비교적 순탄한 관료 생활을 한다. 그러나 이후 조광조와 더불어 왕도 정치 실현위한 개혁을 서두르다가 급기야 이에 반발한 훈구파에 의해

1) 교육(教育)이라기보다는 교화(教化)라는 의미가 더 정확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당대의 사대부들은 교육자적 역할이 필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를 포괄하기 위해 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기묘사회에 연루되어 사형 직전, 금산으로 유배된다. 더욱이 금산 유배 중에 고향의 노모를 만난 문제로 망명죄라는 누명을 쓰게 된 그는 중종 15년(1520) 8월 제주로 유배되어 1년 남짓 만에 36세 나이로 사사된다.

절해의 고도 제주도에서 위리안치(圍籬安置)된 충암은 비운의 삶이었지만 도학자로서 경세제민의 뜻을 고수하였다. 그는 비록 죄수의 몸으로 유배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제주도민의 생활상을 살펴 그들의 현실과 미래를 위하여 흥학교화(興學教化)에 나서기 시작했다.

충암은 제주도민들을 교화하고자 했으며 실제 우물을 파서 맑은 물을 마시게 하였는데 우물은 판서정(判書井)이란 이름으로 전하고 있다. 1521년 36세 때 제주도에서 보고 느끼고 체험한 내용을 기술하여 「제주풍토록(濟州風土錄)」을 남긴다.

훈구파들은 충암에게 엄한 벌을 내리도록 간청하는 상소를 올려 중종은 드디어 자진(自盡)을 명한다. 36세 되던 1521년 10월 30일 충암은 제주목사 이운(李耘)이 전해 준 사약을 받고 술을 가져오게 하여 마신 다음, 목사의 손을 잡고 시사(時事)를 묻고, 형제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노모를 잘 봉양토록 부탁한 후 절명사(絕命辭)인 임절사(臨絕辭)를 남기고, 한 맺힌 일생을 마친다.

선조 1년에는 충암에게 문정(文貞)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가 다시 8년 후에는 문간(文簡)으로 고쳐지고, 영조 24년에는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제주도에서는 충암의 공적을 기려 그가 절명한지 57년 만인 선조 11년(1578) 조인후 판관에 의해 유허터에 충암묘가 세워지고 현종 6년(1665)에 굴림서원을 세워 제주오현의 한 사람으로 추앙된다.

2. 「제주풍토록」의 서지학적 형식

「제주풍토록」은 『충암집』 권4에 2천 백여 자의 본문으로 이루어져 제주의 풍토와 상황을 기록한 풍토지이다. 충암은 중종 15년(1520) 8월에 유배되어 동왕 16년 10월 사사될 때까지 1년 남짓의 유배생활 동안에 그의 조카에게 제주의 풍물을 적어 보냈는데 이것이 바로 「제주풍토록」이다.

이 글은 실제 체험을 바탕으로 16세기 제주지역의 풍토와 상황을 생생하게 그려낸 것으로 최초의 제주풍토지라는 점과 문학적으로도 훌륭한 수필이라는 점에서 높게 평가 받고 있는 작품이다.

‘풍토(風土)’란 어떤 지역의 기후와 토지의 상태로 자연환경과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이는데, 인간생활 그 자체를 포함하며 자연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생활전체를 말한다(정인승, 1976: 1748쪽). 곧, 풍토란 사람들에게 의식되어져 그 생활·문화·산업 등에 영향을 끼쳤거나 또 사람들에게 의해 가꾸어져 변화되어 가는 자연을 말한다. 따라서 그것은 국가에 따라 지역에 따라 갖가지 특색을 갖는다(양순필, 1980: 68쪽).

이러한 풍토에 대한 기록이 바로 ‘풍토기’, ‘풍토지’ 또는 ‘풍토록’이며 제주도와 관련된 조선시대의 기록으로는 「제주풍토록」과 「제주풍토기」, 단 2편뿐이다.

「제주풍토록」에는 16세기 제주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제주의 특수한 기후 조건과 이에 따른 가옥 구조, 언어, 풍속, 특히 뱀신과 무당의 피해, 관원의 횡포, 토지 경작의 양상과 제주의 동물과 조류, 토산물에 대해 설명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개인적 관찰의 시선을 섬세하게 개진하고 자신의 유배생활도 기록하고 있다. 본문의 구성은 크게 지리적 환경, 풍물과 습속, 언어와 사회상, 토산물과 특산물, 유배지의 환경과 정신적 상황의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Ⅲ. 「제주풍토록」의 교육적 의미

1. 충암 김정의 교육관과 실천근거

1) 생생(生生)의 교육철학

조광조를 필두로 성종 때 관계에 진출한 사림파들은 부패한 훈구세력들을 비판하며 강력한 도학 정치를 주장한다. 충암 역시 인(仁)과 경(敬)을 강조하며 이에 뜻을 같이 한다. 충암의 관심은 도학으로 연계되어 천지의 위대한 덕은 만물을 낳는데 있고, 천지의 만물을 낳는 마음을 인이라 하는 독특한 ‘생생(生生)철학’으로 전개된다.

천지의 위대한 덕을 생(生)이라 합니다. 천지가 천지가 되는 까닭은 단지 생생의 리(理)요, 생생의 리는 고금을 통해 쉬이 없어, 사람에게 있어서는 인이요, 사람이 인을 함에 혹 한 숨쉬는 사이에 틈이 있어도 인도(仁道)는 거의 죽게 되니, 한 생각의 미미함에도 모두 생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생리가 혹 끊어지면 천지가 리 또한 끊어집니다. 천지가 사람에게 부여한 것이 중대하지 않습니까? 생생의 리가 조금도 사이가 단절함이 없는 것도 이 경(敬)이요, 마음을 보존하고 정사를 다스려서 정일(精一)하여 쉬지 않는 것도 역시 이 경입니다. 경이 아니면 능히 마음을 보존하지 못하고, 천에 응하는 실(實)이 경보다 큰 것이 없고, 경은 근독(謹獨)보다 큰 것이 없으며, 근독해서 한 터럭의 사념도 없어야 합니다. 한 터럭의 틈이 없다면 마침내 지성무식(至誠無息)의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²⁾

2) 『中宗實錄』, 12年, 8月 條, “天地之大德曰生, 天地之所以爲天地, 只是生生之理, 而生生之理, 自古不息, 而在人則仁 人之爲仁, 或有一息之間斷, 則仁道幾乎餒矣; 一念之微, 皆有生理, 生理或絕, 則天地之理亦絕 天地之付與乎人, 其不重乎 生生之理, 無少間斷者, 此, 敬也; 存心出治, 精一不息者, 亦此敬也 非敬, 莫能存心, 以爲仁, 仁與敬, 固非異事, 爲仁必敬, 爲敬必仁, 天人相與之際, 甚可畏也 應天之實, 莫大於敬, 敬莫大於謹獨, 謹獨而無一毫邪念, 無一毫間斷, 則其終也, 可至於至誠無息之域矣.”

이와 같이 충암은 천지의 큰 덕을 생이라 하고, 이 만물을 낳는 생리(生理)가 곧 인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이 인은 천지가 온갖 만물을 낳는 마음으로 인간에게 그대로 부여되었다고 하였다. 이 인은 만물이 낳고 또 낳아 지속되어지는 힘이며, 이 생생의 리를 통해 인간과 자연의 모든 세계는 항구적으로 그 생명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생생의 리(理)가 조금도 단절됨이 없이 지속될 수 있는 것은 경 때문이며, 인간이 마음을 보존하고 정사를 다스림에 정일(精一)하여 쉬지 않는 것도 이 경 때문이라 하였다(황의동, 2006: 84-85쪽). 즉 그의 생리와 인은 일체요, 인과 경은 서로 보강하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생생의 개념은 일반적인 유가철학의 주장으로 계속 이어지는 생명의 창달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은 주역의 중심원리 중 하나인데, 이 세상 만물이 머물러 있지 않고 영원히 계속 생겨난다, 생생해 간다는 뜻이다. 이처럼 주역으로 시작한 생생의 철학은 여기서 생리로 해석되었고, 그 생리를 체득 혹은 체인 곧 직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경이며 마음의 주체성 확보라 한 것이다(유명종, 1981: 278쪽).

2) 교육실천의 근거, 향약(鄉約)

이러한 생생철학을 실천하기 위하여 충암은 특히 향약을 중시하였다. 왜냐하면 유학을 통한 이상사회 실현의 한 방법으로 조광조(趙光祖)와 함께 충암이 선택한 최대의 이론적, 실천적 근거가 바로 향약이었기 때문이다.

향약은 향촌규약(鄉村規約)의 줄인 말로 시행주체·규모·지역 등에 따라 향규(鄉規), 일향약속(一鄉約束), 향립약조(鄉立約條), 향헌(鄉憲), 면약(面約), 동약(洞約), 동계(洞契), 동규(洞規), 촌약(村約), 촌계(村契), 이약(里約), 이사계(里社契)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렸다.

시행 시기나 지역에 따라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유교적인 예속(禮俗)을 보급하고, 농민들을 향촌사회에 긴박시켜 토지로부터의 이탈을 막고 공동체적으로 결속시킴으로써 체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실시되었다.

16세기에 농업 생산력의 증대, 이에 따른 상업의 발달 등 경제적 조건의 변화로 향촌사회가 중요하고, 훈구파의 향촌사회에 대한 수탈과 비리가 심화되었다. 이에 중종대에 정계에 진출한 조광조를 비롯한 김정 등의 사림파는 훈척들의 지방통제 수단으로 이용되던 경제소(京在所), 유향소(留鄉所) 등의 철폐를 주장하고 그 대안으로서 향약의 보급을 제안하였다.³⁾ 이것은 소농민경제의 안정을 바탕으로 한 중소지주층의 향촌 지배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었다. 기묘사화로 일단 좌절되었으나 사림파가 정권을 장악한 선조대에 와서 각 지방의 여건에 따라 서원이 중심이 되어 자연촌, 즉 이(里)를 단위로 시행하였다.

이 시기에 이황(李滉), 이이(李珥) 등에 의해 중국의 여씨향약(呂氏鄉約)의 강령인 좋은 일은 서로 권하고, 잘못된 서로 바로잡아주며, 예속을 서로 권장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도와준다는 취지를 살려 조선의 실정에 맞는 향약이 마련되었다(이수건, 1989: 59쪽).

향약의 기본 구조는 덕업상권(德業相勸), 과실상규(過失相規), 예속상교(禮俗相交), 환난상휼(患難相恤)이다. 이것은 향촌사회가 덕을 쌓는 교육의 장이 되어 향민들을 순화시키고, 예를 지켜 글을 깨치게 하고, 일을 게을리 하지 않도록 하며, 상부상조를 통한 공동체 의식을 향상시

3) 『中宗實錄』, 13年 9月 5日. “壬寅/御朝講 參贊官趙光祖曰: “臣聞溫陽郡人, 善行鄉約 若善行鄉約, 則固美矣” 領事鄭光弼曰: “鄉約好則好矣 然聚徒而所爲不善, 則邑宰之勢, 反爲弱矣 所當審戒也” 上曰: “雖美事, 而其實不存則不可, 故凡事循名責實, 可也” 光祖曰: “行鄉約之邑, 如壓良爲賤, 拒扞官債之納, 如此等事, 皆已未見 前者金安國爲慶尙道監司時, 乃始令行之, 其時仍興鬪狠, 蓋始初故然也”

키고 교육의 장인 향촌사회에서 향민들을 교육을 통해 생활 속에서 깨우치게 하는 모습인 것이다(곽진주, 2008: 64쪽).

향약의 4대 강목은 유교적 도덕을 연마하고 실천하여 윤리질서를 확립하게 한다. 동시에 상부상조의 정신을 함양하게 하여 이상사회를 지향하려는 교육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또한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유교윤리의 보급과 교육 기회를 확대시켜 결국 조선조가 출발 때부터 지도이념으로 삼은 유교의 사상교화 정책 수행에 대한 사회교육적 의지도 함께 지니고 있다.

향약을 누구보다 강조했던 충암이 이런 점을 간과 했을 리 없을 것이며 따라서 향약의 4대 강목은 곧 충암의 교육적 의지이며 교육철학의 실천근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향약에 근거하여 제주도 사람들을 교화하기 위한 충암의 생각이 가장 구체적으로 반영된 기록이 바로 「제주풍토록」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제주풍토록」은 단순한 풍토지가 아닌 것이다. 그것은 충암의 교육적 담론이 적극적으로 게재된 일종의 교육실천서이기도 하다.

생생철학을 주장하던 충암은 제주도의 혼잡스럽고 사리에 어두운 모습을 목격하고 적잖이 충격을 받았다. 이에 대해 충암은 제주도 사람들을 “글을 아는 사람이 아주 적으며 인심이 거칠다(金淨; 양진건 2008: 25쪽)”고 했다. 그래서 제대로 사는 삶, 즉 남을 교화하여 선을 같이 한다는 겸선(兼善)을 가치로 삼은 충암의 생생의 실천윤리가 제주에서도 펼쳐진다. 그가 볼 때 제주도는 사람들은 상장제의(喪葬祭儀)의 예절을 모르며 음사(淫詞)하는 풍속이 있었고 뱀을 비롯한 동물들을 숭배하는 미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다. 이것을 기록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충암은 향약에 근거한 교육적 논리를 개진함으로써 교화의 방식을 나름대로 진술하였다.

2. 「제주풍토록」의 교육적 구조와 의미

1) 덕업상권(德業相勸)의 논리

향약의 덕업상권이란 좋은 일은 서로 권한다는 의미로 충암의 「제주풍토록」에서는 당시 제주사람들에게 학문을 권장하는 논리로 개진된다.

충암은 교육을 통하여 조선사회가 추구하는 이상정치와 도덕적이며 공동체에 필요한 협동의식을 제주사람들에게 함양시키고자 하였다. 이에 충암은 사림의 경학적 전통에 따라 학문을 권하고 교학활동에 진력하여 김양필(金良弼)과 문세걸(文世傑) 등의 제주사람들과 학문적 관계를 맺는다. 특히 충암이 가르친 김양필은 “이 고장 출신의 생원인 김양필을 제외하고 글을 아는 사람이 아주 적다⁴⁾”고 했을 만큼 관심이 깊었던 사람이며 제주 향교를 다시 고치는 일에 남다른 공헌을 하여 당대 향교의 퇴폐와 교화의 실추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보여준다(양진건, 1999: 74 쪽). 그리고 1534년(중종 29) 제주목사 심연원(沈連源)이 향학당(鄉學堂)을 세우고 명륜당을 보수할 때는, 그가 계획을 지도하여 완성했다.

김양필은 제주의 유학자로 문장과 서예에 능하여, 세인들로부터 문학이 뛰어나고 지덕을 겸비하였다는 평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문세걸은 『충암집』에 실린 「도문사호(悼文士豪)」라는 시의 원주에 “탐라의 뛰어난 인물인데 요절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1년 남짓 기간이었으나 충암이 제주에서 펼친 고민과 실천은 단순한 교육장려 활동이 아니라 제주사람들에게 교학적 자극을 주어 학문풍토를 조성하고자 한 의지였음을 다음을 통해 알 수 있다.

만약 학문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열지 않는다면, 영원히 풍속을 바꿀 기약

4) 金淨(2008), 『제주풍토록(濟州風土錄)』, 양진건, 제주유배문학자료집(I), 제주: 제주대학교 출판부

이 없을 것이다. 아마도 그들의 마음에 이익은 아주 밝히면서도 그 밖의 것은 모르니, 엄치와 착함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이를 싫어하는 것이리라⁵⁾.

16세기 사림파들이 성리학적 질서의 보급에 있어 풍덕교화(風德教化)와 관련, 가장 강조했던 것이 향약인바 무릇 백성들에게 바른 풍속을 일으켜 학문과 생활을 바르게 함을 목적으로 했던 충암으로서 의견 개진은 당연했다. 이는 곧 풍화(風化)의 교(教)를 통한 교육의 사회화를 강조하고자 했던 예교적 교학사상을 반영하려는 노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교육의 목적에 있어서 조선사회가 유교적 이념 하에 향민간의 협동은 물론 공동체 의식 고양을 통해 향촌을 교회하고 바람직한 공동체를 형성하는 향촌애로부터 시작했다는 점으로 삶이 곧 교육이고 교육이 곧 삶이었음을 알 수 있다(곽진주, 2008: 63쪽). 제주사람들의 사회화라는 교육적 가치와 지역의 발전이라는 가치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것이 덕업상권이라고 충암은 본 것이다. 곧 이를 통하여 교육이 지향하는바,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역 공동체의 교화를 이끌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충암을 위시한 조광조 등은 주자학적 이상사회 실현 구현을 급히 서둘렀는데, 민속(民俗)을 단속하는 향약은 그 좋은 방편으로 간주되어 전국적인 실시를 역설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과는 달리 향약실시의 기세는 급속히 시들었고 1519년 조광조 일파가 몰락하는 기묘사화로 말미암아 사라져 버렸다. 당시의 향약은 전통과 조화된 자치적인 것이 아니라 이상에 치우친 당국자들에 의하여 선도되는 관주도적인 것이었기 때문이다. 또, 향약은 우두머리인 약장(約長)에 책임자를 얻어야 행할

5) 金淨, 前掲書. “若不教以學文 以開其心 則永無移風之期 蓋其心深喻於利 不知其他 有云廉善則以爲不利而深厭之矣”, p.26.

수 있는데, 지방에서 고을마다 인재를 얻을 수 없는 것도 문제였다.

제주사람들에게 학문을 권장하는 논리로 개진된 「제주풍토록」의 덕업상권은 바로 이런 문제를 그대로 보여준다. 다시 말해 사리에 어둡고 어리석음 수밖에 없었던 당대 제주도의 현실에 대한 이해보다는 사람파로서 충암의 이상만이 그대로 개진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양필(金良弼)과 문세걸(文世傑) 등의 제주사람을 충암이 키운 것은 약장(約長)의 빈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 과실상규(過失相規)의 논리

향약의 과실상규란 잘못은 서로 규제한다는 의미로 과오나 실수를 서로 바로 잡아주어 교화하는 일을 말한다. 이때, 교화라 함은 가르치고 이끌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즉 서민교육의 보급으로 도덕을 가르치고 학업을 일으키기 위해 문고의 설치, 효행, 우애를 권하는 등 유교정신의 고취와 상부상조의 인보정신을 우선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충암은 나쁜 일은 서로 경계하는 과실상규의 실천을 위해 제주사람을 교화하여 뫼매함을 버리고 스스로 규제하여 이름다운 풍속을 이루게 하고자 하였다. 단순한 도덕적 윤리강령으로만 머물게 하지 않고 향촌사회 구성원들 서로간의 협약과 질서를 지키도록 사회 교육적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이처럼 조광조를 비롯한 충암이 권선징악과 상부상조를 토대로 한 자치규약을 정착시키고자 한 목적은 향약을 조선사회 개혁을 위한 하나의 포석으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일련의 교육을 통한 지방자치적 논리이며 공동체마다의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 개혁을 이루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충암은 「제주풍토록」에서 과실상규의 문제를 “풍속의 교화”라는 차원에서 다루었다. 제주의 풍속에 대해서는 당시 무당의 폐단과 뱀 숭배 신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귀신을 무척 숭상하고 무당이 많으며 뱀을 신으로 받들고 있어, 충암이 뱀을 죽여야 한다고 가르치지만 제주 사람들은 여전히 뱀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개탄하였다.

그는 무속과 깊은 관계가 있는 제주사람들의 당시 삶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귀신을 무척 숭상하여, 남자 무당이 아주 많은데, 재난을 가지고 사람을 놀라게 하여 재물을 산처럼 취한다. 명절, 초하루, 보름, 칠칠일이면 반드시 희생을 죽여서 사악한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음사는 거의 3백 여 곳에 이르고 해마다 달마다 증가하여, 오사한 말들이 자주 비등한다. 사람들이 병에 걸려도 약 먹기를 무척 두려워하는데, 귀신이 노하여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며, 죽을 때가 되어도 깨닫지 못한다. 풍속으로 뱀을 무척 꺼려서, 신으로 받들고, 보면 곧 술을 차리고 축원하며, 감히 쫓거나 죽이지 못한다. 나는 멀리에서 보아도 반드시 죽였는데, 이 고장 사람들은 처음에는 크게 놀라더니, 얼마 후에는 보는 것이 습관이 되고 나서는, 저 사람은 다른 고장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뿐이었다. 끝내 뱀을 죽여야 하는 것임을 깨닫지 못하니, 그 미혹됨이 정말 우습다. 내가 예전에 듣기에, 이곳은 뱀이 무척 많은데 비가 내리려고 할 때면 뱀이 머리를 성 담장의 구멍으로 무수히 나란히 내민다 하였는데, 이곳에 와서 조사해보니 헛된 말일 뿐이다. 단지 뱀이 육지보다 많을 뿐이다. 추측컨대 이 고장 사람들이 지나치게 숭배하기 때문일 것이다.⁶⁾

6) 金淨, 前揭書. “酷崇祠鬼 男巫甚多 嚇人災禍 取財如土 名日朔望七七日 初七十七二十七 必殺牲爲淫祠 淫祠幾至三百餘所 歲增月加 妖訛屢騰 人疾病 甚畏服藥 謂爲鬼怒 至死不悟 俗甚忌蛇 奉以爲神 見卽呪酒 不敢驅殺 吾則遠見必殺 土人始而大駭 久而慣見 以爲彼異土人 能如是耳 終不悟蛇之當殺 惑甚可笑 吾舊聞此地蛇甚繁 天欲雨 蛇頭駢出城縫數四云者 到此驗之 虛語耳 但蛇多於陸土而已 意

폐쇄된 사회일수록 그리고 그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이 황폐할수록 무속신앙 같은 것이 번창하기 마련이다. 의지할 곳 없는 제주사람들의 삶은 당신(堂神)에게 의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당신을 신앙하므로 당신과 하나가 되는 정신적 상황에 이르게 되고 여기에서 현실적 황폐함을 보상받게 된다(양진건, 1981: 159쪽).

조선사회가 유교의 보급과 강화로 당신숭배의 무속은 점점 힘을 잃어 가게 되지만 제주에서 특히 여성들에게서는 추방과 좌절, 배고픔의 신인 제주당신들이 현실적인 고통의 위로가 되기 때문에 당신숭배의 무속은 성행될 수밖에 없었다.

풍속의 교화에 대한 신념이 뚜렷했던 충암은 무당이 많고 온갖 사악한 신을 마냥 믿으며 뺨을 지나치게 숭배하는 등 무속과 음사가 만연했던 제주사람들이 과실상규하여 하루빨리 여기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이 악하지만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서 선한 자질을 가진 인간으로 바꿀 수 있으며 이 후천적인 노력이란 다름 아닌 교육임을 강조했던 성리학의 입장을 대변한다.

향약이 실시되면서 현실적 측면이 사적인 감정으로 기우는 경향이 짙어 좋고 나쁜 일의 기록과 판단도 공정하지 못하여 도리어 인심을 박하게 만들고 민속을 구속하여 자연스러운 인정을 매마르게 하는 역효과마저 드러난다. 명종대에 이르러 「여씨향약」의 시행문제 논의되더니, 선조 초에 향약의 실시여부가 다시 당면문제로 등장하고 경연에서도 향촌의 전통적인 계의 자치적 기능이 지적되기도 하였지만 조정에서는 또다시 「주씨증손여씨향약」을 관의 주도로 실시하려고 하였다. 여기에 대하여 이이는 ‘지금은 양민(養民)이 먼저요 교민(教民)은 다음이다’라는 명언

으로 반대하여 중지하였다.

「제주풍토록」의 과실상규는 제주도의 무속과 음사에 대한 이해가 없이 풍속의 교화만을 강조함으로써 결국 교민(敎民)에 집착하는 우를 범하는 문제를 노정한다.

3) 예속상교(禮俗相交)의 논리

향약에서 예속상교는 예의로 서로 사귄다는 의미로 유교도덕의 근본인 예의와 습속을 실현하지는 것이다. 특히 「제주풍토록」에는 예속상교의 실천을 통해 윤리질서 확립이 필요한 제주의 모습이 여러 곳에 보인다. 그의 눈에 비친 당시 제주의 풍속은 사람들이 예와 부끄러움을 모르고 타산적인 염치불고의 상황이었다.

충암은 당시 제주도 관원 횡포와 사회상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날마다 각각 이익을 낚는 것을 일삼아, 작은 이유만 있어도 모두 뇌물이 있어야 하니, 청렴과 의로움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강함으로써 약한 사람을 제어하고 포악으로써 인의로운 사람을 겁박함이 임금에 못지않다. 이 때문에 관원들은 육한처럼 탐욕스러운데 이상한 일이 아니다. 염치와 의로움이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백성들이 그 은혜를 가슴에 두지만, 이 무리들은 그 어리석음을 비웃는다.⁷⁾

충암이 「제주풍토기」에서 풍토란 이름으로 특별히 제주도 관원의 횡포를 기록한 것은 그 의미가 각별하다. 왜냐하면 충암을 비롯한 사람과 들은 16세기 초 훈구파의 무궤도하고 과도한 수탈을 비판하고 있었고

7) 金淨, 前掲書, “皆平民等鄉吏 日各以漁利爲事 毫縷細故 皆有贈賂 不知廉義爲何事 以強制弱 以暴劫仁 不下君示 以故官員貪如陸閑 不以爲怪 有廉義者 蚩珉懷其惠而此輩笑其迂”, pp.25-26.

바로 그런 훈구파와 연계된 지방세력은 수탈의 하수인이었던 수령 밑에서 실무를 보는 이족(吏族) 들이었고 그들은 향권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이다(향촌사회사연구회, 1990: 14쪽).

충암의 눈에 비친 제주의 사회상은 문명의 암흑시대였다. 윤리도덕을 갖춘 이가 거의 없고, 문화적으로 낙후되어 있으며, 부정과 비리가 난무하였다. 정의가 외면당하고, 약육강식의 동물적 생리가 판을 치며, 종교가 사회적 비리에 편승하는 등 반문명의 양산지로 보인 것이다. 그래서 풍화의 교를 통한 교육의 사회화를 강조하고자 했던 것이다(양진건, 1981: 199쪽).

만약에 고승이 있어서 입을 잘 놀려서 천당과 지옥을 가지고 겁준다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 고장의 승려들은 모두 아내를 얻어 마을에서 살면서 목석처럼 완고하여, 마치 무당처럼 사람들을 놀래켜서 떡과 술을 굶어내니 또한 이익에만 귀착될 뿐이다.⁸⁾

충암이 보건대 제주에 예를 지키는 곳이 아니다. 승려가 그 대표적이다. 서로 사립에 예를 지키는 덕목으로 향촌의 구성원들과 좋은 풍속을 나눔으로써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 이상적인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 예를 다함으로써 규율을 지켜 질서를 바로잡고 또한 상호 평등한 입장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곽진주, 2008: 50쪽). 이는 곧 충암의 인과 경을 중시하는 생생철학의 반영이다. 누구나 살고 싶어 하고 모두가 살기 좋은 향촌사회는 인을 중시하고 실천함에 있어 경할 수 있는 상호존중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선 향약의 목적이 살기 좋은 공동체였던 만큼 이를 이루기 위해서

8) 金淨, 前揭書. “若有高僧辨口 牀以天堂地獄 似亦不爲無助 而土之僧徒 皆畜妻村居 頑如木石 若如巫鬼者嚇人餅酒 亦利之歸耳”, p.26.

는 어른과 관원들이 모범을 보이고 실천해야 유교적 지치주의가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예속상교는 농경사회에서 볼 수 있는 연장자에 대한 예우를 통해 향촌사회의 질서와 안정은 물론이고 우리의 미풍양속을 이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풍속순화를 통해 이상적인 대동사회 건설의 이념을 실현시키려 한 의지였다고 할 수 있다.

유교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사회질서를 세우는 데 있어 충암은 백성들을 교화시키기 위해 교화의 주체인 국가와 사대부 양반층 즉 지배층 관원들의 모범을 강조했다. 전해오는 속담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있다. 지배층이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이 말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 사회통합과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최고의 가치라 할 수 있다.

조선의 백성들은 임진왜란을 겪은 뒤 막심한 피해로 겨우 목숨만 부지하는 경황이었으므로 인륜이나 명분을 돌볼 겨를이 없었다. 따라서, 상하 모두 무너진 질서와 생활윤리 등을 재건할 필요가 시급하였다. 여기서 상하를 망라한 새로운 향약, 즉 향규와 향도의 약속을 종합한 지연적인 자치조직으로서 동계(洞契), 동약(洞約)이 출현하게 되는 사회적 여건이 마련되는데 「제주풍토록」의 예속상규는 그 이전부터 이미 무너진 질서와 생활윤리의 재건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만큼 당대 제주도의 사정과 환경이 좋지 않았음을 역설적으로 대변해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4) 환난상휼(患難相恤)의 논리

향약에 있어 환난상휼은 어려운 일은 서로 돕는다는 의미로 공동체의 식의 실천과 물질적인 것에 대한 집착과 이기심에서 벗어나 인간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제시를 뜻한다.

충암은 유배라는 근심과 좌절의 상황 속에서도 비록 죄인의 몸이었지만 목민의 의지로 연군의 정을 환난상환을 통해 나타낸다. 그래서 그때까지 유학이 떨치지 못하여 무당들의 푸닥거리가 많았고 예법에 어두웠던 제주는 충암으로 인하여 풍속이 일변하고 문교(文教)가 이로부터 흥기할 수 있었다(이종묵, 2005: 8쪽).

당시 제주에는 물 사정이 무척 좋지 않았는데 충암이 우물을 파서 맑은 물을 마시게 하였고 그 우물은 “판서정(判書井)”이란 이름으로 오늘 날에 전해지고 있다. 그는 「제주풍토록」에 다음과 같이 제주도의 물 사정을 설명한다.

한라산과 주읍지는 샘이 아주 적어서, 주민들은 간혹 5리 되는 곳에서 물을 길어오면서도 가깝다고 말한다. 물은 간혹 하루 종일 한 번이나 두 번 길어 오는데, 잔샘물이 많고, 길어올 때는 반드시 나무통을 등에 지는데, 많이 길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⁹⁾

당시 제주사람들은 그때그때 마시고 사용할 물을 찾아 먼 길을 걸어 걸어오곤 했다. 지하수가 있어도 이용할 줄 몰랐던 것이다. 충암은 이를 목격하여 우물을 짓게 하니 제주사람들에게는 크나큰 삶의 질 향상이자 환난상환이라 할 수 있겠다. 이것은 당시의 현실에서 지방민들이 현실적인 곤란에 직면했고 이를 협동으로 극복하였으며 더불어 공동체의식을 다졌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성종실록 13년(1482) 기사를 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9) 金淨, 前掲書. “漢挈及州邑地 泉井絶少 村民或汲水於五里則謂之近水 或有終日一汲二汲而多鹹泉 汲必以木桶負行 凡卜物多女負行 取多汲也”, p.27.

“이제 전교를 받아 보건대, ‘최경례의 친계(親啓)에 이르기를, 「제주와 대정 읍성 안에는 모두 우물과 샘이 없는데, 제주는 동문 밖 40여 보에, 대정은 남문 밖 70여 보의 땅에 작은 시내가 있어서 아무리 가물더라도 마르지 아니하니, 청컨대 웅성(甕城)을 쌓고 물을 성안으로 끌어들여서, 급할 때 대비 하도록 하소서.’ 하였으니, 그것이 적당한가의 여부를 의논하여 아뢰라.’고 하셨는데, 신 등이 참작하여 자세히 살펴건대, 두 읍성 안에는 우물이 없으니, 시냇물을 끌어들일 형세와 큰비로 물이 불을 때에 물살에 충돌하여 허물어지는 여부와 성터의 척수(尺數)를 멀리서 헤아리기 어려우니, 청컨대 제주 목사로 하여금 친히 살펴보고 치계(馳啓)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¹⁰⁾

이를 살펴보면 충암이 오기까지 제주에는 우물이 없었고 물을 길러 가는데 5리 정도는 가깝다고 해야 할 지경이고 10리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그의 적거지 주변에 샘물이 나기에 우물을 만들어 깨끗한 물을 주민들과 함께 마시도록 했던 것을 이해하게 하는 대목이 있다.

열악한 곳이나 이 정자가 의지되는 바가 있다. 또한 나는 다행이도 샘이 발원하는 곳에 사는데, 성남 과수원의 동쪽 모퉁이로 샘의 근원은 시작하자마자 곧 켜져, 동쪽 성 밑으로 흘러가는데, 내가 물을 길어 쓰는 데 보탬이 된다. 얼음처럼 차다. 단지 하루는 더러워져서 물놀이를 할 수가 없다.¹¹⁾

10) 『成宗實錄』 13年, 12月 4日, “兵曹啓: 今承傳教: ‘崔景禮親啓云: 「濟州及大靜邑城內, 並無井泉 濟州則東門外四十餘步, 大靜則南門外七十餘步之地, 有小川, 雖旱不竭 請築甕城, 引流入城中, 以備緩急, 其議便否以啓.’ 臣等參詳兩邑城內, 無井有川, 引流形勢, 及大雨水漲時, 衝毀與否, 城基尺數, 難以遙度 請令濟州牧使, 親審馳啓 從之”

11) 金淨, 前揭書. “惡地斯亭 有少賴焉 又吾居幸近泉發源 城南果園之東隅 源發即大 可如福泉澗水 流出東城底 以資吾汲用 汲處僅四十步許 冷冽如水 地本無水 賴此 泉滌煩 又州夏日 氷肉于此 但下流汚不可弄翫 汲先既多 勢不得不汚”. p.31.

어쩌면 그때까지 많은 목사와 유배인들이 정작 실천하지 못한 생존에 관련된 목마름을 그가 해결해준 것이다. 작은 생각이라도 생각으로만 머물지 않고 실천으로 옮겨지는 환난상휼의 정신이 충암에게는 있었다. 그는 제주사람들에게 환난상휼을 강조했고 몸소 실천했던 것이다.

「제주풍토록」의 환난상휼은 공동체 생활을 의미하는 규범으로 향약은 이에 대해 매우 엄격했다. 향약의 공동체적인 면을 보면 온 집안이 염병(染病)으로 농사를 짓지 못할 때는 약중(約中)에서 협력하여 대신 김매주고, 가난한 병자, 고독한 병자 등에 대해서는 약중에서 치료를 도왔다. 과년한 처녀나 빈궁하여 혼처를 얻지 못하는 자에게는 혼사를 주선하고 무의무탁(無衣無托)한 고이는 장성할 때까지 생활, 교육을 협력하여 보살펴주었다. 또, 농촌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법과 질서, 이를테면 남의 도랑물을 훔친 자나 남의 밭을 침범하여 경작한 자는 중벌, 소와 말을 남의 논밭에 들어가게 하는 자는 초벌에 하벌, 농사를 게을리 하여 양전(良田)을 썩히게 한 자는 중벌, 벼를 훔친 자는 상벌, 이웃의 환난을 돕지 않은 자, 남의 돈이나 쌀을 빌리고 갚지 않은 자, 공동경작, 공동부역에 나가지 않은 자 등은 모두 차상벌(次上罰)에 처하여졌으니 이 벌은 보통 태30도였다.

그러나 「제주풍토록」에서는 이러한 공동체적 규범이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는 향규를 기록한 글이기 보다는 기본적으로 풍토지라는 한계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하지만 충암은 판서정의 예를 통해 이웃의 환난을 돕는다는 문제를 몸소 실천했다는 점에서 그의 의미가 크다.

III. 결론

충암은 사림 출신으로 조광조와 함께 도학정치 실현을 위해 노력을 하다가 제주도 유배지에서 일찍이 삶을 마친 인물이다. 그는 제주에서의 유배기간 동안 많은 교육적 영향을 남기게 되는데 그런 자료 가운데 하나가 16세기 제주 곳곳의 상세한 모습을 쓴 「제주풍토록」이다.

충암은 무엇보다 '향약'을 통해 지방의 질서가 확립되길 바랐던 사림 개혁파로서 16세기 당시 몽매하고 관혼상제의 예절을 몰랐던 제주사람들을 흥학교화하고자 했다. 미신이 성행하였고 뱀을 비롯한 동물들을 숭배하는 음사(淫詞)의 풍속에 대해 향약적 질서가 갖춰지길 원했던 것이며 이런 소망이 「제주풍토록」에도 담겨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풍토록」에는 유교적 이상정치 실현과 향촌사회 안정을 위한 방법으로 향약의 4대 강목을 적용한 실천이 나타나 있다. 즉 덕업상권, 과실상규, 예속상교, 환난상휼을 통하여 조선시대 향약이 추구했던 지역의 공동체 의식 강화와 윤리의식을 높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추구하고자 한 것이다.

첫 번째의 덕업상권은 좋은 일은 서로 권하도록 하는 경학전통에 따라 교학을 통해 학문을 권장하고 학적관계를 맺는다. 두 번째 과실상규는 지나치게 뱀과 귀신, 무당 숭배신앙에 젖은 제주사람들을 교화하는 것이고 세 번째, 예속상교는 당시 만연했던 관원들의 횡포를 지적, 개탄하며 인의 실천 방법으로 경을 강조했다. 마지막 네번째는 제주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우물을 파 삶의 질을 올려준 환난상휼 측면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는 충암과 제주사람들 사이의 관계망을 통해 각각 그 의미의 진폭을 형성, 순차적으로 교육이라는 의미로 공명하여 큰 나무를 뿌리내리게 하였다. 충암은 제주유배라는 근심과 좌절 속에서도 비록 죄인의 몸이었지만 목민의 의지로 연군의 정을 풍속 교화로 나

타낸 것이다. 당시까지 제주는 유학이 떨치지 못하여 무당들의 푸닥거리가 많았고 예법에 어두웠으나 충암으로 인하여 그 풍속이 일변하고 문교가 이로부터 흥기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인과 경을 철학적 기초로 하여 학문적 실천에 엄격했던 충암의 도학정신은 제주사람들에게 정체성과 교육적 의미 제공자로서 큰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또한 그의 이러한 실천은 「제주풍토록」을 통해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우러지는 삶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현재의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참고문헌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金淨(2008), 『제주풍토록(濟州風土錄)』, 양진건, 제주유배문학자료집(1), 제주: 제주대학교출판부.

李健(2008), 『제주풍토기(濟州風土記)』, 양진건, 제주유배문학자료집(1), 제주: 제주대학교출판부.

곽진주(2008), 「향약의 지역공동체 평생교육적 분석」, 동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부산.

김연순(2007), 「조선시대 교화의 성격과 사대부의 수신서 보급」, 한국문화연구 제13호.

신창호(2005), 「교육학개설(우리 교육의 본질과 흐름에 관한 탐구)」, 서울: 서현사.

양순필(1980), 「이건(李健)의 제주풍토기 소고」, 한국언어문학 21호.

양진건(1986), 「조선조 제주교육사상사연구」, 『제주도연구』, 제3집.

_____(1981), 『제주교육행정사』, 제주: 제주문화.

_____(1999), 「조선조 제주교육사 형성의 정책적 동인」, 『한국교육사학』, 제21집.

_____(2010), 「동계 정은 서원배향의 제주교육사적 의미」, 교육사상연구회 제24권 제2호.

_____(2011), 『제주 유배길에서 추사를 만나다』, 서울: 푸른역사.

이수건(1989), 『조선시대 지방행정사』, 서울: 민음사.

이종묵(2005), 「조선전기 위리안치의 체험과 그 형상화」, 『한국문화연구』, 9호, 이화여자대학교.

유명종(1981), 『한국사상사』, 서울: 이문사.

장순범(1978), 『충암선생집』, 국회도서관보.

장재천(2007), 「조선시대 향약의 정치적 이념과 도덕 공동체의식 강화」, 『인문사회논업』, 제14호.

정인승(1976), 한국어대사전, 서울: 현문사.

정재걸(1989), 「조선전기 교화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향촌사회사연구회(1990), 『조선후기 향약연구』, 서울: 민음사.

황의동(2006), 「충암 김정의 도학정신과 경세론」, 『유학연구』, 제13집,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논문집.

Abstract

The Educational Meaning of
'Jeju Poong-To-Rok' of (Choong Am) Kim Jung

Kim, Yu-Ri *

In this study, 'Jeju Poong-To-Rok' of (Choong Am) Kim Jung is reviewed from the perspective of educational structure and layers to explore its educational meaning. (Choong Am) Kim Jung was Sarim and tried to realize the ethical politics but ended his life early by involved the affair of 'Gi Myo Sa Hwa'. During the exile in Jeju, he wrote 'Jeju Poong-To-Rok' which contains the details of the cultural climate and the life of people there. In order to achieve an ideal politics in terms of Confucianism he worked with Cho Kwang Jo in his entire life to diffuse 'Hyang Yak' among people by support a self-governing local society. His philosophy emphasizing the practice of 'Hyang Yak' is shown throughout the book. Choong Am eventually wanted to teach people in Jeju through the book for the four outlines of 'Hyang Yak', Duk-Up-Sang_Gwun(德業相勸), Gwa-Sil-Sang-Gyu(過失相規), Ye-Sok-Sang-Gyo(禮俗相交), and Hwan-Nan-Sang-Hyul(患難相恤).

Key Words

(ChoongAm) Kim Jung, Jeju exile, Jeju Poong-To-Rok, Hyang Yak, Duk-Up-Sang_Gwun(德業相勸), Gwa-Sil-Sang-Gyu(過失相規), Ye-Sok-Sang-Gyo(禮俗相交), Whan-Nan-Sang-Hyul(患難相恤).

* Ph.D. Candidate, Department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교신 : 김유리 제주대학교 교육학과
(E-mail : yurikim12@naver.com)

논문투고일 2011. 12. 20.

심사완료일 2012. 02. 01.

게재확정일 2012. 02. 13.